회원사 탐방 ⑭

한일사료(주)

▲한일사료(주) 공장전경

‘양축가를 위한 가치창조와 ‘개혁의 한일인상 구현’

▲이무영사장

1968년 11월 “신뢰는 기업의 초석”이라는 경영철학과 연구개발, 인화단결, 책인완수의 사훈 아래 지속적인 발전으로 94년말 KOSDAQ 등록 기업으로 공개된 후 성장의 속도를 더해 연간 꾸준한 매출 증가로 중견기업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 한일사료는 ‘양축가를 위한 가치 창조와 ‘개혁의 한일인상 구현’이라는 21세기 가치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경주하고 있다.

또한 “From Feed to Food, Feed is Food !”라는 기업정신과 끊임없는 기

▲실험실내부전경

술개발 투자로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고자 노력하는 한일사료, 그 진면목을 들여다본다.

국내 최대의 낙농사료 기업

낙농사료와 관련한 한일사료의 현장접근 방식은 타사와 차별화 돼 있다. 먼저 현장 배합비 작성 서비스와 동시에 착유기 관리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key-feeder를 운영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모델 farm을 이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일사료는 1,500낙농농가의 실증 자료를 가지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관련 농가의 기술 지도가 가능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그 농장에 맞는 맞춤형 기술지도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서울우유 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낙농사료를 공급하면서 타 회사들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포만 시켜도 직배송하는 물류 서비스를 통하여 소규모 농장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낙농산업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하여 낙농농가 자녀 장학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신진기술 및 이론 지식 향상을 위하여 지역별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

HACCP 인증심사가 치뤄진 바로 다음날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취재에 허락해준 이무영 사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용인의 한일사료.

▲실험하고있는모습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였다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예전에 봤던 한일사료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틀렸다. 공장외부의 깔끔한 도색작업을 비롯하여 입구에서 실시되는 철저한 소독관리,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공장내부를 보며 HACCP인증 획득을 위한 임직원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비쳐져 있었다.

HACCP 심사로 인하여 몇 개월 동안 야근을 밥먹듯이(?)한 한일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친 모습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일사료의 역동적인 모습속에는 가족같은 분위기와 서로를 배려해 주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기에 가능하지 않을 듯 싶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직원과 사무실직원의 하나된 모습이 회사 임원의 한사람으로 너무 감명이 깊었다는 이무영 사장의 모습속에서 회사를 생각하는 직원, 직원을 먼저 생각하는 Owner가 있기에 지금의 한일로서 발전되지 않았나 사료된다.

세계를 향한 진출

10년전 10,000톤/월 판매하던 한일사료는 현재는 그 두배인 20,000여톤을 매월 판매하고 있다. 앞서말한 낙농사료의 도약적인 발전 이외에도 매직산란계사료의 경우 15년동안 일본의 IO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배합비 기술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차별화된 제품 설계로 타사보다 난중이 차별화되고 난각이 개선되며, 산란율 지속 기간이 길어지는 특수한 사료를 판매하고 있어 10년이상 장기 거래하는 농장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출고를기다리고있는제품들이산더미처럼쌓여있다

또한 생생 양돈사료는 한냉 양돈 계열화 사업을 주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여 수직과 수평 계열화를 병행으로 진행되가고 있다.

한편 포화가 된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 시장 개척에 끊임없는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미 중국 천진과 장춘에 TMR 공장 및 낙농사료 전용 공장을 운영중이며, 한국에서의 낙농사료 제조, 판매에 대한 기술을 수출하는 사업을 준비 · 착수중이다.

지난 1995년 월 평균 약 9500톤을 생산하였으나, 작년에는 그 두배가 넘는 월평균 20,300톤을 생산 · 판매한 한일사료,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판매물량이 될 것으로 보이나, 향후 5년 뒤에는 현재 취약한 부분인 비육우 사료와 양돈사료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월 평균 25,000톤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일사료.

한국속의 기업에서 벗어나 세계로의 기업으로 발돋음 할 것을 기대해본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7 · 8월호에서 게재된 회원사탐방 (주)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의 안영진 전무이사의 이름을안형진전무이사로바로잡습니다.